

“달라진 KIA 기대해” … 2020 향해 새출발

함평 챌린저스필드서 마무리훈련
후임 감독 미정에 박흥식 대행 체제
다음달 17일까지 35일간 진행
군필 가세…마운드 뜨거운 경쟁 예고

KIA타이거즈의 2020시즌이 시작됐다. 시즌 종료 이후 휴식을 취했던 KIA 선수들이 14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 모여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다. 앞서 일본 오키나와 등 해외에서 진행됐던 마무리캠프는 올 시즌 함평으로 장소를 옮겨 일정을 소화한다.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 속 챌린저스 필드에 야구장 1면이 추가로 생기면서 훈련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캠프는 내달 17일까지 35일간 계속되며,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된다. 차기 감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김기태 감독 자진사퇴 이후 팀을 이끌었던 박흥식 감독 대행이 이번 캠프를 지휘하게 된다. 감독 선임, 코칭스태프 개편 등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캠프가 시작되면서 내부 고민은 남았지만, 선수들은 밝은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코치진도 '분위기 메이커' 유민상에게 캠프 주장을 맡기면서 밝은 분위기에서 훈련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대규모로 캠프가 진행되는 만큼 선수들은 A조와 B조로 나눠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또 짜임새와 세밀화를 강조하면서 연습경기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흥식 감독 대행은 "짜임새 있고, 세밀한 야구를 해야 한다. 활기찬 야구를 위해 상황에 맞게 안타 없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다"며 "게임도 많이 진행하려고 한다. 게임을 하다 보면 상황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전의 '체력 위주'의 양적인 훈련이 아닌 실전을 통해 다양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질적인 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박 감독대행은 캠프를 통한 자아발전과 성장도 주문했다. 박 감독 대행은 "올해 좋은 결과를 낸 선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14일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KIA는 내달 17일까지 35일간 함평과 광주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수들이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좀더 노력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캠프와 함께 KIA의 경쟁도 새로 시작했다. 특히 올 시즌 KIA의 희망으로 떠오른 '젊은 마운드'에는 군 전력 선수들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시즌

더욱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회의 시즌을 보낸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황운호는 "다시 훈련 시작해서 기분이 좋다. 운동하는 게 좋다. 쉬는 기간에도 챔피언스필드에 나가 훈련을 했다"며 새로운 경쟁을 반겼다.

올 시즌 KIA의 깜짝 스타로 떠오른 박찬호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 새로운 기분이다"며 "다음 시즌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는 11월, 12월에 달린 것 같다. 지난해 경험을 해봤다. 지난 겨울에 정말 열심히 했더니 됐다. 이번 캠프에서도 잘 만들고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예전과 달리 무조건 많이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으면서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다"며 캠프 분위기를 전했다. /함평=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5세 테니스 여왕

가우프, WAT투어 최연소 여단식 우승

올해 15세인 코리 가우프(110위·미국)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여퍼 오스트리아 린츠(총상금 25만달러)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2004년생인 가우프는 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2017년 프랑스오픈 우승자 엘레나 오스타펜코(72위·라트비아)를 2-1(6-3 1-6 6-2)로 제압했다. 이로써 가우프는 2004년 타슈켄트오픈에서 역시 15세 나이로 정상에 오른 니콜 바이디소바(체코) 이후 15년 만에 최연소 WTA 투어 대회 단식 챔피언이 됐다. 당시 바이디소바는 만 15세 6개월이었고 현재 가우프는 만 15세 7개월이다. WTA 투어 단식 최연소 우승 기록은 1977년 미국 포틀랜드 대회의 트래이스 오스틴(미국)이 세웠으며 그때 나이가 만 14세 1개월이었다. 올해 원불던 1회전에서 39세 노장 비너스 윌리엄스(미국)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16강까지 진출한 가우프는 이번 우승으로 14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이 71위까지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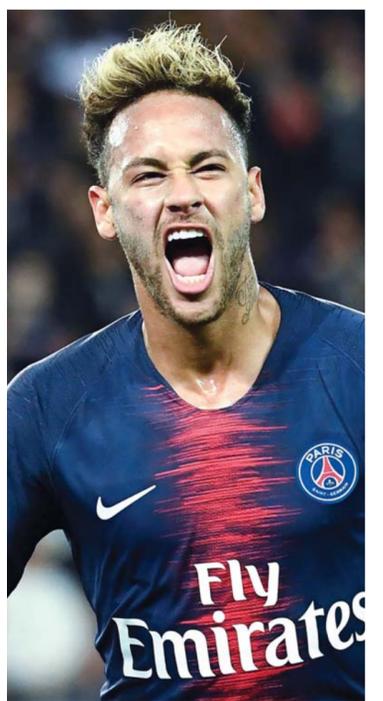
손흥민

손흥민 vs 네이마르 대결 보나

브라질축구협 홈페이지에 "다음달 한국팀과 경기"…대한축구협 "미정"

손흥민(토트넘)과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망)의 대결이 펼쳐질까? 브라질축구협회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A매치 기간 중 한국대표팀과 붙는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대표팀은 다음달 1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사우드 유니버시티 스타디움에서 '라이벌' 아르헨티나와 대결한다. 이후 브라질은 11월 19일 UAE 아부다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맞붙을 예정이다. 피파랭킹 2위인 브라질 대표팀은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망)를 필두로 로베르토 피르미누(리버풀), 필리페 쿠틀뉴(바이에른 뮌헨), 에데르손(맨체스터 시티) 버티고 있는 축구강호다. 축구 통계 사이트인 트랜스퍼마켓에 따르면 14일 기준 브라질 선수단(26명)의 전체 몸값은 11억 3800만유로(1조 4875억 5946만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 선수단 전체 몸값은 1억 3550만유로(1771억 2153만원)로 브라질의 1.5%수준에 불과하다.

피파 랭킹 2위인 브라질은 최근 A매치 기간 중 유럽 국가를 섭외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UEFA(유럽축구연맹)가 독자적으로 유럽 국가만을 위한 리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UEFA는 지난해 UEFA 네이션스리그를 출범시켰다. 네이션스리그는 유로대회와 별개로 2년 주기로 UEFA회원국 국가대표팀끼리 벌이는 국가대항 축구대회다. 때문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강호들도 유럽 국가를 섭외하기 어려워졌다. 한국 대표팀은 11월 14일 레바논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 역시 이후 평가전을 가질 상대를 찾아왔다. 11월 평가전은 한국 대표팀의 올해 마지막 친선경기다. 한국 브라질과 역대 다섯 차례 맞붙어 1승 4패로 열세에 있다. 지난 1999년 3월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김도훈 현 울산 현대 감독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네이마르

류현진 FA, 보라스 손에 있다

게릿 콜·랜던·스트라스버그…FA 초대어 앞세워 몸값 올리기 전술

2019-2020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은 '슈퍼 에이전트' 스포트 보라스(67)의 손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 매년 다수의 FA 대어들을 거느리고 스토브리지를 달궜던 보라스는 올 시즌에도 초대어 고객을 앞세워 FA시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수 몸값 폭등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보라스가 올해엔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 관심이 쏠린다.

보라스 고액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FA 최대어 게릿 콜(29·휴스턴 에스트로스)이다. 휴스턴의 우완 에이스 콜은 올 시즌 20승 6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한 FA 최고의 투수다. 콜은 안정성과 미래성,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나이는 아직 20대다. 여기에 스타성까지 갖고 있다.

현재 매체들은 인정사정없이 선수의 몸값을 올리는 보라스가 콜의 몸값을 역대 FA 투수 최고액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역대 투수 최고액은 워싱턴 내셔널스의 맥스 셔저(35)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2억 1000만달러에 계약했다. 역대 최고액은 브라이스 하퍼(27)로 지난해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2019년부터 2031년까지 13년간 총 3억3000만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이 계약은 보라스가 끌어냈다. 보라스의 특급 고객은 내셔널리그 다승왕 스티븐 스트라스버그(31·워싱턴)도 있다. 스트라스버그는 윌트아웃을 활용하면 올 시즌을 마친 뒤 FA가 될 수 있다. MLB닷컴은 스트라

스버그를 올해 FA 투수 중 2위로 꼽고 있다. 타자 최대어인 워싱턴의 내야수 앤서니 렌던(29) 역시 보라스 사단이다. 올 시즌 타율 0.319, 126타점, 34홈런을 친 렌던은 워싱턴의 중심타자로 팀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로 이끌었다. 보라스는 올해 FA '빅3'를 모두 고객으로 갖고 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인 2012년부터 보라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빅리그 첫 FA 계약도 보라스에게 일임했다. 보라스는 우수한 선수를 대거 확보해 서로의 몸값을 올리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술을 쓴다. 류현진은 콜, 스트라스버그의 몸값 책정과 협상 흐름에 따라 좋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